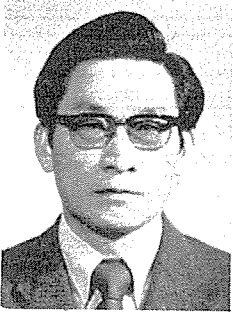


지난 3월의 일이다. 당시 문교부 K 차관 대신으로 이집트가 주관하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U·N 회의”와 관련된 모임에 나갔었다. 작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있었던 본회의의 후속회담으로 카이로에 몇 개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을 불러드려 U·N. 본부에 건의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아랍연맹에서 대준 시보레의 큰 차로 호텔과 회의장을 왕복했다. 여러나라 제품의 차들이 한데 어울려 카이로 시내를 구르고 있고 그 물결 속에 내가 탄 차도 한 목 끼어 있었다. 무심히 앞을 달리는 차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눈에 익은 차였기 때문이다. 후미에 영어글자로 H사 이름과 “PO-NY”의 표시가 조그마한 당나귀 뛰는 모습의 쇠붙이와 더불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반가움이란 이루 다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니가 이역만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시내를 다른 몇몇 차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택시가 되어 거 구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운전기사의 그 만족스런 표정은 인상적이 아닐 수 없었다. 듣기로는 포니 승용차가 2천여대, 그리고 포니 픽업도 다수 들어와 있다고 한다. 천 여대의 “제미니”도 곧 들어오리라는 총영사관 측 이야기를 들어서 뿐 아니라 몇몇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이 이기 용역을 맡아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의 힘이 여기까지 미친데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와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이고 북한의 극성 방해가 대단했을 텐데도 그 속을 꿰고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감동은 더 컸다.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그 회의의 주요의제였으며 이집트학자뿐 아니라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빈번히 한국을 지적하여 가장 성공한

카이로의 “포니”속



趙完圭 (理博|前서울大副總長)

개발도상국의 하나임을 즐겨 인용했다. 그럴 때 마다 마음이 흥족하긴 했으나 한편 불안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이 성공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했다. 나는 서슴없이 “잠재력의 축적”이라고 답했다. 현대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자로서의 생산되지 아니한 채로 해방을 맞았고 다시 6·25동란으로 주요한 교육, 연구기관과 시설이 모두 폐허가 되는 등 우리나라 과학의 역사가 이제 겨우 20년이 넘는 그러한 짧은 기간이었으나 우수한 젊은이들이 속속 선진국 등에 유학하여 학식과 견문을 넓혔고 그들이 때를 맞추어 조국을 위해 봉사한 때문이라고 덧붙여 일러 주었다. 다만 지하학원이 풍족하지 못하고 석유파동을 겪어야하며 임금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래를 낙관할 수 없으나 우리는 원래 슬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과학과 기술의 길을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금을 선진국이 마련하기로 해놓고 그들은 근래의 석유파동을 핑계삼아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그 실현성이 극히 희박하다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몇몇 나라의 과학자는 한결같이 비난과 불평을 털어 놓았다. 잘 살게 된 나라이거나 또는 못 사는 나라거나 모두가 그들 생존을 첫째의 중요한 일로 삼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냉엄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그 회의를 참석하고 다시 한번 실감했다. 카이로 뿐 아니라 뉴욕, 파리, 런던 등에서 포니 제미니 등 구르는 국산차를 보고도 무심해질 그러한 날이 가까운 장래에 꼭 오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면서 카이로에서 얻은 “포니”속을 달래보고 싶다.